

칠레, 경제 침체 탈출 위한 투자 촉진 정책 시행

칠레

Mining.com, Zawya, Reuters

2022/09/14



□ 칠레 정부가 2023년도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혜택이 포함된 정책을 시행할 계획임.

- 최근 칠레 정부가 2023년도 투자 촉진 정책을 발표했음. 해당 정책은 구리 채굴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하고 있음.
- 가브리엘 보리치(Gabriel Boric)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리오 마르셀(Mario Marcel) 칠레 재무부(Ministerio de Hacienda) 장관은 정부가 계획 중인 정책으로 적어도 투자 유치액을 5%p 이상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.
- 마리오 마르셀 장관은 현재 침체된 칠레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.

□ 칠레 정부는 투자 촉진 정책으로 중소기업 및 친환경 사업 프로젝트에도 세금 혜택을 부여할 방침임.

- 칠레 정부에 따르면 투자 촉진 정책은 기업이 사업 자금을 보다 편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민간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투자 활동에 여러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또한, 칠레 정부는 친환경 사업 프로젝트에도 5억 달러(한화 약 6,950억 원) 한도 내에서 각종 면세 및 감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임.
- 이에 더해, 칠레 정부는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추었는데, 이처럼 인화한 세율을 연장 적용하기로 했음.

□ 칠레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북미와 유럽에 두었던 사무소를 다시 열 예정임.

- 한편, 칠레 정부는 신규 구리 채굴 프로젝트에 대해서 5년 동안 세금 혜택을 준다고 밝혔음.
- 세계 최대 구리 채굴 기업이자 칠레 국영 광산 기업인 코델코(Codelco)는 얼마 전 구리 채굴 프로젝트 지연으로 2023년도에 구리 채굴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발표한 바 있음.
- 칠레 정부는 광업을 비롯해 건설, 에너지, 운송 부문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북미와 유럽의 외국인 투자 유치 사무소를 다시 개설할 계획임.